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절 후 제11주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시편 25:12-15 다함께

찬 송(Opening Hymn) 48장 다함께

교독문(Responsive Reading) 43번 다함께

공동기도(Prayer)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항상 주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군사로 세우시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의 계명을 따라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악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며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게 하옵소서. 주어진 날들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Apostles Creed) 다함께

성경봉독(Scripture) 열왕기상 11:9-13 인도자

말씀증언(Sermon) 이송원 목사

“마음이 떠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봉 헌(offering) 2장 다함께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인도자

찬 송(Hymn) 362장 다함께

축도(Benediction) 이송원 목사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델타변이로 인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실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성도 간의 기도와 교제(전화, 카톡)를 통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이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우소식
 - 김희원권사님의 회복 / 김희상권사님의 결석 제거수술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제목〉

-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하도록.
- 미국에 회개와 부흥을 통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 사회 전 분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말씀묵상》 열왕기상 11:9-13

9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찌기 두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10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11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12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뺨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1. 솔로몬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이나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9-10절) 지금 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2.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로 인해 왕국이 지켜지게 됩니까? (11-13절) 나에게도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중에 하나는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은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했다”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여러 번 그 일을 생각하고 실행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났기에 하지 않았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과 생각으로 한 일조차 몸으로 행한 것과 똑같이 여기시며 죄라고 말씀합니다(마 5:27-29).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삶의 균형은 순식간에 깨져 버립니다. 솔로몬의 타락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의 과거의 화려했던 모든 전력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자신을 분별을 잘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고백했던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셔서, 그가 구했던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즐거움의 대상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뀌면서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끝이 납니다. 그는 여전히 왕위를 누리다가 죽게 되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왕국을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맙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고 있고, 무엇으로 만족과 행복행이 결정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근간이 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E-mail : hanmadang@sbcglobal.net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